

올 주요 금융지주 주총 키워드

# #회장연임 #女사외이사 #주가 ↓

최대 실적, 배당 확대에도 주가부담  
KB금융 처음으로 女사외이사 2명  
전자 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장

올해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장 큰 이슈는 지주회장의 연임이다.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회장과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여성 사외이사의 영입도 관심이다. KB금융지주가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을 새로 선임키로하면서 금융지주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늘어나며, 신한지주 역시 윤재원 흥의대학교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웠다.

주총에 앞서 급락한 주가는 부담요인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배당도 늘렸지만 금융지주 주가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금융이 25일, 신한지주가 26일 주총을 열기로 확정했다.

신한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 짓는다. 이사회는 지난해 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조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

## 〈4대 금융지주 주주총회 주요 안건〉

금융지주 (주총개최일)	주요 안건
신한금융지주 (3월 26일)	*조용병 회장 연임 및 사내이사 재선임 *신규 사외이사로 윤재원 흥대 교수, 진현덕 폐도라 대표 선임
KB금융지주 (3월 20일)	*ESG(환경·사회책임·기업지배구조)위원회 신설 정관 변경 *신규 사외이사로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 오규택 중대 교수 선임
하나금융지주 (3월 20일)	*기존 사외이사 전원 재선임
우리금융지주 (3월 25일)	*손태승 회장 연임 및 사내이사 재선임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 *신규 사외이사로 첨문악 전 푸본생명 부회장 선임

다. 이번 주총에는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도 재선임하는 안건도 올라와 있다.

사외이사로는 박철, 히라카와 유키, 박안순, 최경록 등 4명은 재선임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였던 필립 에이브릴은 임기 1년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 추천했다.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는 윤재원 흥의대 경영대학 교수와 진현덕 폐도라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윤 후보자는 이번 주총에서 선임되면 신한금융 이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여성 사외이사가 된다.

KB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바꿔 ESG(환경·사회책임·기업지배구조)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ESG경영을 속도감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윤종규 회장을 포함해 사내 및 사외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는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오규택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를 추천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단독 후보로 올라와 있지만 변수는 파생 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효력이 정지될지 여부다. 손 회장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의 징계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오는 25일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정관을 바꿔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주총을 통해 기존 사외이사를 모두 재선임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지주도 일단 주주들의 직접 참석보다는 전자 투표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권장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기술혁신전문펀드 조성… 中企 활동 지원

신한銀-산자부 업무협약  
국내 기술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  
2022년까지 5조 규모 자금 관리

신한은행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 및 제3기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술혁신 전문펀드는 국내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R&D)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다. 총 2800억원 규모의 순수 민간재원으로 만들어지며, 신한은행은 이 펀드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펀드 조성으로 기존 대출 중심의 소극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금이 절실했던 국내 기술혁신 제조기업에 직접 투자가 이뤄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1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 운용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성기홍 대표이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원장, 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신한은행 진득동 은행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종석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는 제조·부품·장비 등 국내 기술혁신 제조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한은행은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산업기술(R&D) 자금 전담은행으로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규모의 산업기술 자금을 관리·운영한다.

산업부는 2012년부터 국가 R&D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시스템(RCMS) 운영을 위

해 전담은행을 지정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2기 사업자 선정에 이어 이번 3기 전담은행으로 선정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펀드 조성을 계기로 많은 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해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이 되는데 금융권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원으로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윤종원 은행장은 “새로운 R&D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술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게”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IBK기업銀, 기업 전문펀드에 1800억 출자

IBK기업은행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산업

통상자원부 산업기술자금을 예치·관리하고, 기술혁신 전문펀드에 1800억 원을 출자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전문펀드는 기업은행과 민간투자자 재

## “공매도 한시적 금지해야”… 반대 여론도

### » 1면 ‘공매도 뒷북규제’서 계속

1월 20일 이후 관련 청원 12건  
“외국인·기관만 공매도 이익봐”  
정부 “공매도 제한 부작용 더 커”

평상시에는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방지하고 급락 시에는 유동성 공급과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일시적인 충격이 왔을 때는 주가의 추가 하락을 촉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업계 안팎 “한시적 공매도 금지해야 …”

업계 안팎에선 이번 대책이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부족하다고 말한다. 과열종목을 지정하는 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부터 공매도 관련 청원은 총 12건이다. 특히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정부가 공매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공포심을 이용해 외국인·기관 투자

자만 공매도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달리 증권사를 거쳐야하고 신용도 상대적으로 낮아 상환기간과 종목 선정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따라 외국인·기관이 공매도를 가격조장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공매종합포털에 따르면 10일 기준 공매도에 투자한 외국인은 62.7%로 가장 많았고 기관투자자 36.4%, 개인투자자 0.9%였다.

◆정부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이 더 커”

그러나 정부는 공매도 금지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방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책 발표전 부분적 금지안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며 “아시아시장과 뉴욕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들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게 오히려 대외적으로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유리 기자



NH농협은행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위원회 장미경 위원장(가운데)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협은행

## NH농협銀 코로나19 대응 비상금융지원위 신설

즉각적 대응 체계 구축  
지원상황, 주요 현안 점검

NH농협은행은 신속하고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장미경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비상금융지원위원회는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매일 점검한다.

비상금융지원위원회 장미경 위원장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현재의 비상상황이 끝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카뱅, 작년 순익 137억 ‘흑자전환’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출범한 지 3년 만이다.

카카오뱅크는 11일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37억원으로 전년 동기 210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은 견조하게 늘었고, 수수료 수입이 확대되면서 비이자 부문에서 적자가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22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했

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바젤I 기준)은 13.48%다.

지난해 말 기준 수신과 여신 잔액은 각각 20조7000억원, 14조9000억원이다. 고객수는 1128만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는 신용 카드 모집대행 서비스를 출시하고, 오픈뱅킹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신규 상품 및 서비스 확대와 함께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해 흑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